

## 마쓰시타 정경숙(政經塾)-정치 사관학교

-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기 설립된 마쓰시타 정경숙은 민주당 시절 노다 총리를 배출하는 등 힘 있는 정치세력으로 부상
- 자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정경숙의 세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정치인 육성기관으로서의 정경숙에 대한 관심도 낮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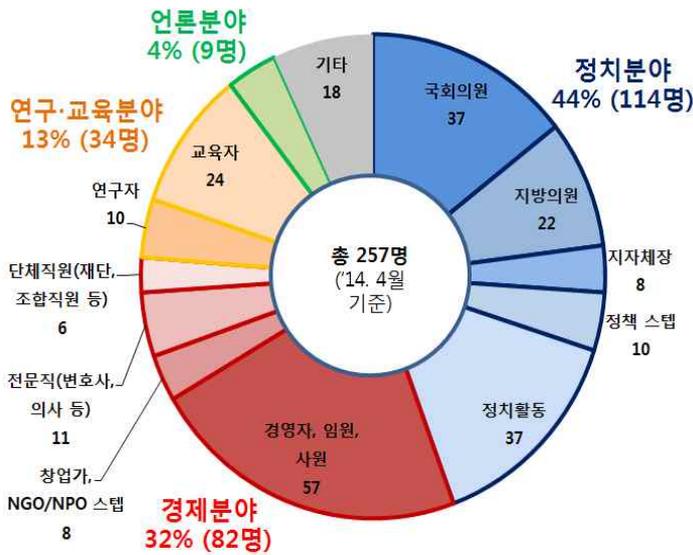
### □ 마쓰시타 이상을 실천하기 위한 리더 육성기관

- 공익재단법인 「마쓰시타 정경숙」은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타 코노스케가 일본을 이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1979년 사비 70억 엔을 투자하여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
- 입교 조건은 나이는 22~35세, 재학 또는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매년 약 200명이 지원하고 있으나 합격자는 10명 이하
  - 연수 기간은 4년, 커리큘럼은 정치학·경제학·재정학 등 전문지식과 다도·서예·좌선·검도 등 일본 전통문화, 자위대 체험 입대, 24시간 100km 워킹, 농림업·어업·제조·판매 현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 연수 기간에는 기숙사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고, 연수중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음
  - 입교 후 2년은 ‘기초과정’으로 커리큘럼을 수행, 그 후 2년은 ‘실천과정’으로서 각자 선정한 주제에 따른 활동을 전개
    - \* 실천과정이 외부에서 진행될 경우 외부 생활이 인정됨
  - 입학금, 기숙사비, 수업료 등이 없고 매월 20만 엔의 연수수당과 각자 활동에 따라 활동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없음
    - \* 매년 9월과 3월에 심사가 있는데 학생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에 따라 활동자금을 증감 또는 퇴교 조치

□ 일반가정 출신 청년들을 국회의원·총리로 육성

- 정경숙 설립 당시 입교생들이 인생경험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 마쓰시타 코노스케는 정책 공부보다 리더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교양을 키우는데 주력
  - 정경숙 커리큘럼도 정책을 만드는 기술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塾(학원)이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곳이 아닌 스스로 배우고 혼자 무엇인가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는 自修自得(자수자득) 교육방식이 주목받고 있음
  - 마쓰시타 정경숙에는 상근교수가 없으며 기초과정에는 외부강사가 역사, 고전, 경제학, 재정학 등을 가르치지만, 실천과정은 스스로 알아서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능력과 역량에 차이가 난다고 함
- 마쓰시타 정경숙은 이상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재에 대해 연수의 「장」을 제공
  -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 의원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있지만 세습의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치인이 되기 위해 “3반” 지반(선거조직), 간판(지명도), 가방(자금)이 필수라는 최근 일본의 정치풍토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젊은 정치지망생들에게 마쓰시타 정경숙은 매력적임
  - 노다 전 총리도 자위대원의 아들로 젊은 시절 과외, 가스검침원 등으로 생계를 꾸렸으나, 정치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마쓰시타 정경숙에 지원
- 1기생인 아이사와 이치로가 1986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첫 당선한 후 현재까지 국회의석에서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 의원 자리가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음
  - 특히 민주당에 정경숙 출신들이 많고 아직 30~40대의 젊은 인재가 많기 때문에 장래 총리가 배출될 가능성도 높음
  - 유권자들은 정경숙 출신 정치인들에게 젊고 청신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 정치적 상황이 답답하거나 교체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정경숙 출신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분야별 졸업생 >



<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 주요인사 >

<b>[자민당]</b>
아이사와 이치로 : 전 중의원 예산위원장
다카이치 사나에 : 현 총무대신
사토 다츠야 : 전 금융담당대신
오노데라 이츠노리 : 전 방위대신
<b>[민주당]</b>
노다 요시히코 : 전 총리
마쓰바라 진 : 전 납치문제담당대신
하라구치 가즈히로 : 전 총무대신
마에하라 세이지 : 민주당 전 대표
겐바 고이치로 : 전 외무대신
<b>[기타]</b>
오카다 구니히코 : 하버드대학 연구원
가미쿠라 다사유키 : SW기업·이미지니아 회장
시마 사토시 : 소프트뱅크 사장
오다 겐코우 : NPO 싱크탱크·일본정책프런티어 이사장

□ 정치 세력으로 성장과 쇠퇴

- 마쓰시타 정경숙이 유명해진 것은 '93년 중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15명을 배출한 이후임
  - 비자민·비공산연립정권의 성립을 계기로 정경숙 출신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비록 이 정권은 1년 만에 해산했지만 정경숙 출신 의원은 계속 증가
- 노다 총리가 취임함으로써 정경숙에 대한 평가가 급상승, 기존의 정치학교나 인재육성단체가 주목을 받기 시작
  - '11~12년에는 하시모토 오사카시장의 「유신정치학교」, 가와무라 나고야시장의 「가와무라다카시 정치학교」, 아이치현지사의 「도카이다이시(東海大志)학교」, 사가현지사의 「미래정치학교」 등 정치인을 육성하는 기관이 잇달아 설립
  - 민주당에 의한 정권 교체로 신설된 정당의 대표, 원전 사고를 비판하면서 인지도를 높인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고조된 것이 배경
  - 그러나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 정책적 성과 부족, 자민당의 정권 탈환 등으로 신규 정치학교의 존재가 희박해져 해체된 기관도 많음

- 현재 활발한 정치학교는 자민당이 주도하는 중앙정치대학원과 연계한 지방정치학교, 그리고 직장인 등 일반시민의 스피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관 등이 있음
- 특히 TOKYO자민당 정경숙은 지방의원 약 100명을 배출, 창립자 후카야 숙장을 존경하여 재수강하는 사람도 많아 ‘후카야 칠드런(children)’들이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보다 큰 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 \* 자민당 도쿄도지부 연합회는 ‘15.4월 지방통일총선거 후보 예정자들에게 TOKYO자민당 정경숙 수강을 의무화

**< 현재 활동중인 일본의 정치·경제 사숙(私塾) >**

	창립자	개요
일신숙(一新塾)	오마에 겐이치 (경영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립 : 1994년</li> <li>• 목적 : 21세기의 차세대 리더 및 주체적 시민 육성</li> <li>• 코스 : 1년(강의 및 워크숍)</li> <li>• 비용 : 입학금 5만 엔, 수강료 1년 15만 엔</li> </ul>
자민당 중앙정치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립 : 1957년</li> <li>• 총장 : 아베 신조(자민당 대표)</li> <li>• 목적 : 자민당 당원의 질적 향상 도모,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li> <li>• 특징 : 지역정치학교와 연계</li> </ul>
TOKYO 자민당 정경숙	후카야 다카시 (전 통상산업대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립 : 2006년</li> <li>• 코스 : 1년(일반리더코스, 전문정치코스), 매월 1~2번 수강</li> <li>• 특징 : 자민당 중앙정치대학원 지정 지역정치학교 국회의원 7명, 지방의원 약 100명 배출</li> </ul>

□ 시사점

- 마쓰시타 코노스케의 정경숙 설립 의도는 정치적 기반이 없는 청년들을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지도자로 육성하려는 것임
- 그러나 정치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이 3만이 있는 정치인과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
- ‘12년말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한 이후 정경숙 지원자들이 감소하면서 존재 의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교육기간이 4년으로 길고, 다른 직업과 병행 수강할 수 없을뿐더러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이 입교를 회피

- 마쓰시타 정경숙은 1990년대에 한국인 인턴을 수용하였고, '96년부터 수년간 대우 그룹에서 학생들에게 현장을 제공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
- 한일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리더 교류는 중요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기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정경숙 34기생 4명은 한일 관계를 주제로 '14.6.9~13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 서울대학교, 각국 대사관, DMZ 등을 견학
  - \*\* SBS기자 출신인 유민호 퍼시픽21 소장은 한국인 최초로 마쓰시타 정경숙을 수료, 저서 『일본 내면 풍경』을 출간

<참고자료>

넷케이비즈니스 온라인(2011.9.1), JBPress(2012.4.9), 산케이 뉴스(2014.10.15)